

당선 언제쯤 결정?...“최장 13일” vs “4년 前보다는 빠를듯”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차기 미국 대통령을 결정짓는 투표가 5일(현지시간) 시작되면서 오차범위 내 초박빙 접전으로 진행돼온 이번 대통령 선거의 승패가 언제 확정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4년 전인 지난 2020년 대선의 경우 11월 3일 진행된 선거가 같은 달 7일에야 확정됐는데, 이번에도 박빙 대결 구도 속에 등록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州)별로 승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전투표율이 70%에 육박했던 2020년 대선 이후에 일부 주의 경우 우편투표를 비롯한 사전투표를 신속하게 개표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이 때문에 올해 개표 결과는 2020년보

다는 더 빨리 나올 것이라 전망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초당정책센터에 따르면 올해 미국 대선 유권자는 2억4천400만명으로 추정된다. 올해 투표율이 2020년(63.6%) 수준을 기록할 경우 1억6천200만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4일 오전까지 7천800만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이 가운데 투표소 현장투표는 4만200만여명, 우편투표가 3천530만여명이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6천746만명이 우편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만큼 실제 사전투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규모는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 대선(1억145만명) 때 보다는 적은 것이지만 2016년(4천724만명) 등 그 이전 대선보다는 훨씬 많은 수치다.

각 주의 선거 결과는 본투표와 사전

사전투표 7천800만명 ↑...초박빙 땀 우편투표 개표 속도 관건 펜실베이니아 개표 상황·승리, 전체 대선 결과 확정 판단될 듯

투표 개표를 해야 할 수 있는데 우선본투표의 경우 7개 경합주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5일 오후 10시에 종료된다.

대선이 진행되는 5개주와 워싱턴DC 중 투표가 가장 먼저 종료되는 곳은 인디애나와 켄터키(오후 6시·이하 미국 동부시간)다.

이어 1시간 후에 경합주 조지아를 포함해 7개 주가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에 들어간다. 이후 다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오후 7시30분), 펜실베이니아(오후 8시), 위스콘신(오후 8시) 미시간(오후 8시·일부는 오후 9시) 애리조나(오후 9시), 네바다(오후 10시) 등이 순차적으로 투표를 종료한다.

개표에서 우선적 관건은 박빙 대결 구도가 그대로 이어질지 여부다.

대부분의 경합주가 오차범위 내에서 두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최근 여론조사처럼 개표가 얼지락되지락하는 초접전으로 진행될 경우 끝까지 개표해야 승자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이번 양상이 현실이 될 경우 우편투표를 비롯한 사전투표의 개표가 중요해진다.

2020년 대선의 경우 본투표 개표 때는 당 색깔이 빨간색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다가 사전투표 개표가 진행될수록 우위가 사라지는 이른바

‘붉은 신기루’(red mirage)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에는 ‘투표 조작 음모론’을 이유로 우편투표를 비롯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대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상태라 사전투표가 주별로 실제 어느 후보에 유리할지도 불확실하다.

이런 맥락에서 만약 초박빙 대결이 벌어질 경우 우편투표를 비롯한 사전투표 처리가 선거 승패 확정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선의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을 비롯해 7개 주는 선거 전까지 사전투표 처리 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거 당일부터 밀봉된 봉투를 열어 선거구별로 분류하고 유권자 서명을 확인하는 작업 등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펜실베이니아의 개표 상황과 승리 확정이 전체 대선 결과 확정에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펜실베이니아는 2020년 대선 때도 본선거 4일 후인 11월7일에야 승자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가 나온 직후에야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됐다.

경합주 가운데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은 본투표 전에 사전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투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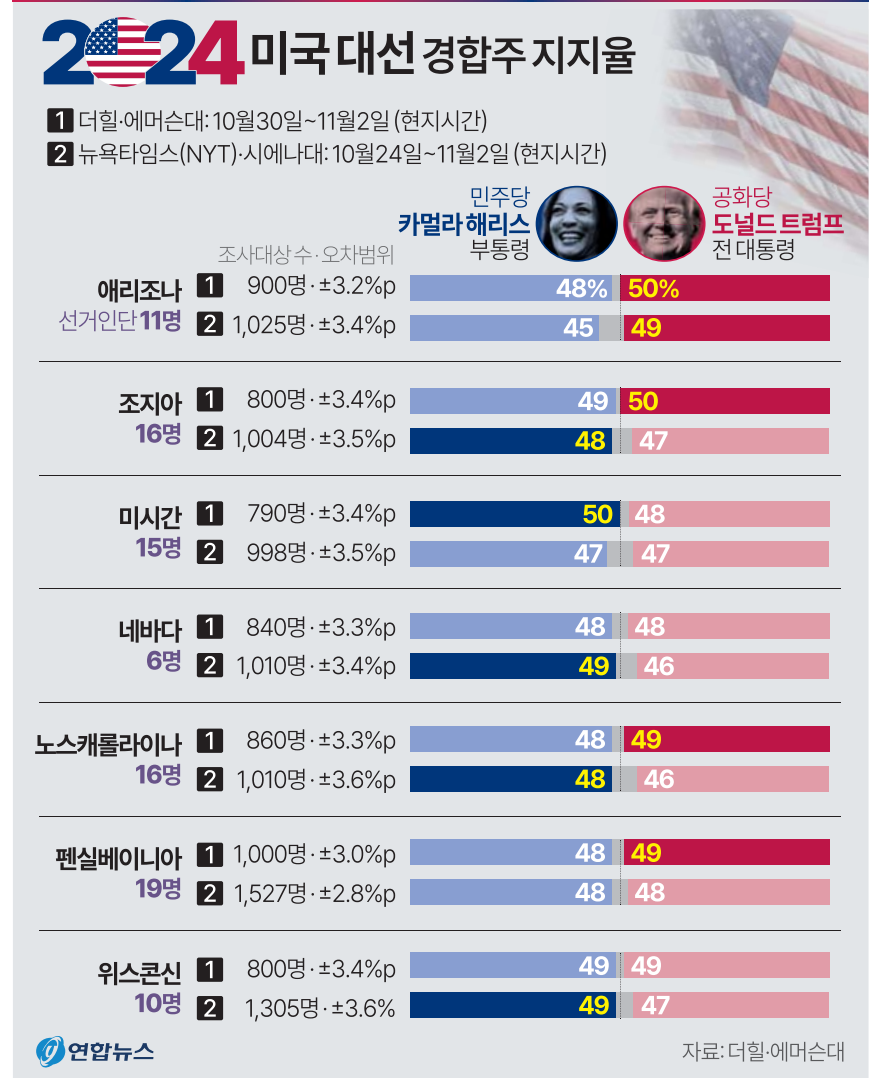
이중 조지아는 경합주 가운데 가장 빠르게 이르면 선거 당일 자정께 결과를 알 수도 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이 보도했다.

다만 투표일 당일까지 우편투표를 접수하는 애리조나의 경우 다른 주들보다 우편투표 개표가 늦게 시작돼 개표와 집계를 모두 끝내는데 최장 13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다.

이 밖에 네바다의 경우에는 선거일 당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에 대해서는 선거일 4일 이후 도착분까지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조지아주는 해외 및 군인 유권자의 우편투표에 대해서 선거일 3일 이후 도착분까지 인정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향후 일정과 절차는

내달 17일 선거인단 투표...내년 1월6일 의회서 결과인증·1월20일 취임

미국 대선은 선거인단을 통한 일종의 간접선거제를 택하고 있어 투·개표 이후 취임 때까지 일정과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권자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한국과 제도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도 한 쪽이 분명한 우위를 보이고, 상대 후보가 선거 결과에 조기에 승복하면 내년 1월20일로 예정된 제47대 대통령 취임식까지 절차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막판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계적으로 동률 구도로 분석될 정도로 초박빙 경쟁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투표 이후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이미 2020년 대선 패배 승복을 거부한 바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배 시 선거 불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듯한 발언들을 해왔고, 공화당 측은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한 소송까지 제기해 둔 상황

이라 개표부터 개표 결과 인증 때까지 또 하나의 대치 전선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다. 개표 최종 완료 전이라도 당선 유력자가 나오고 경쟁 후보가 승복할 경우 연방총무청(GSA)은 그다음 날부터 정·부통령 '잠정 당선인'에게 정권 인수에 관한 사무실 공간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잠정 당선인의 대통령직 수행을 위한 GSA 주관 오리엔테이션도 시작된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밀 정보 브리핑도 그 시점부터 잠정 당선인에게 제공된다.

반면 선거 후 5일 안에 분명한 승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명확한 승자가 누구인지 결정될 때까지 두 후보에게 동등하게 정권 인수 관련 GSA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각 주에서 개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수에 맞춰 12월11일 주별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된다. 12월17일 주별로 선거인단이 투표를 실시하면 각 주는 그 결과를 12월25일까지 연방의회에 송달하게 된다.

이어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상·하원 의원 선거를 거쳐 내년 1월3일 개원하는 연방 의회가 내년 1월6일 상·하원 합동 회의를 열고, 주별로 송달받은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한 후 이를 인증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절차를 진행하면 1월 20일 신임 대통령 취임에 앞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연합뉴스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무엇보다도

파크골프

무료 레슨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